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와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7.8일(화)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3.7.1.일을 기념하여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부산에서 2회째 행사가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에는 산업부·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코트라·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년 행사에서는 ①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하여 ②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사례 등 실무교육, ③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되었다. 산업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유사한 개발사례의 정보공유 및 시사점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부산 강서(명지지구)에 입주한 신약개발 외투기업(싱가포르 100% 출자)

행사를 주관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앞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에도 참석하여 청장들로부터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4610)
		담당자	사무관	황대영	(044-203-4611)

□ 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03.7.1일)을 기념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수여
- 경제자유구역청과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로 투자유치, 개발업무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추진 등

□ 행사 개요

- 일 시 : '25.7.8.(화) 14:00
- 장 소 : 부산 강서 신라스테이 서부산
- 참석자 : 산업기반실장,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

□ 주요내용

일자	시간	주요내용	비고
7.8(화)	◎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		
	14:00~14:05	행사 개최	사회자
	14:10~14:25	유공자 포상 및 기념촬영	산업기반실장
	14:25~14:30	모두발언	산업기반실장
	14:30~14:35	모두발언	부산진해청장
	◎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실무자 소양교육)		
	14:40~15:40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	정책기획팀 양광석 과장
	15:50~16:20	새만금 개발사례	새만금개발청 유지원 투자유치과장
	16:30~17:00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례	김승관 실장(제인스)
7.9(수)	◎ 현장교육(경제자유구역 현장방문)		부산진해청